서쪽의 북적이는 금능, 협재를 조금만 지나면 한적한 마을 저지리가 나오는데요. 저지리는 자연이 아름다운 생태 환경 보존지역이면서도 문화예술인 마을이 형성되어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지리에서도 아늑한 동네에 위치한 돌담과 감귤과수에 둘러싸인 농가를 리모델링한 민박집이 바로 돌담민박이예요. 농촌 전원생활을 테마로 고향 집의 포근함을 담아 오직 한 팀만이 이용 할 수 있는 독채 농촌가옥 입니다. 외관은 농가이나 내부는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었어요. 유행에 치우치지 않고 제주다운 숙소 돌담 민박에서 여유로운 제주의 정취를 한껏 느껴보실수 있습니다. 10분 이내의 거리에 신화역사공원, 오설록, 금오름, 방림원, 한림공원 등 관광지로 이동도 편하답니다.

" 제주 서쪽의 조용하고 아늑함을 담은 나만의 숙소, 고향 집의 포근함이 느껴지는 오직 한 팀만을 위한 힐링 공간입니다. 여유로운 제주의 정취를 가득 담은 자연과 예술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

저지돌담민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532-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12길 8-1

우리 숙소의 특별한 점

• 오직 한 팀만이 이용할 수 있는 독채 농촌 가옥

• 생태 환경 보존지역으로 제주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돌담 민박 숙소

• 제주현대미술관, 야생화 박물관, 방림원등 주변에 관광지 인접

이런 여행객에게 추천

• 주변 방해받지 않고 프라이빗하게 독채로 이용 원하시는 분

• 꾸미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느끼시고 싶은 분

• 펜션 주변 관광지의 방문을 원하시는 분

알아두면 좋은 사항

• 걸어서 2~3분 거리에 있는 저지녹색체험공원 에서 곶자왈산책 체험을 할 수 있어요.

• 10분 이내의 거리에 신화역사공원, 오설록, 금오름 관광지가 있어 이동도 용이해요.